

#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ding Promotion Activities to Expand Social Roles of Public Libraries

이 용 훈(Yong-Hun Lee)\*

### 초 록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독서진흥 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도서관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를 분석하고,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미 공공도서관들의 다양한 독서진흥 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어 보다 강력한 독서진흥 활동은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와 이를 통한 사회적 기반 확보에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정부,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조정할 협의기구 구성·운영, 법적 기반 마련, 도서관의 자발적인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 추진, 독서 및 책 정보제공 체계 구축과 대중서평지 발행, 독서 캠페인과 독서활동 주도, 가정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각종 독서진흥 관련 시상제도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ABSTRACT

As society has more interest in reading activities, it has become possible to secure social value of libra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reading. In this regard, the study aimed to analyze social tasks that the libraries face and suggest concrete methods through bibliographical examination. Currently, various regions of the nation have an increasing interest in libraries, particularly, children's libraries. The public libraries can expand their social roles by meeting these social requests. As a variety of activities by the public libraries to promote reading have helped peopl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ibraries, more aggressive reading promotion activities are considered to help expand the roles of the public libraries and secure social base. Accordingly, the libraries need to take the initiative in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by establishing a committee to adjust various reading promotion activities i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ming up with legal base, pursuing development of voluntary reading promotion program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network for reading and books, publishing book reviews, leading campaign for reading and reading promotion activities, supporting reading at home and expanding award system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reading.

키워드: 독서, 독서진흥 활동,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공공도서관  
reading, reading promotion activities, social role of library, public libraries

---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blackmt@hitel.net)

논문접수일자: 2006년 5월 16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6월 10일

## 1. 서론

해방 이후 근대 도서관 역사에서 우리 도서관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서관이 우리 사회 속에서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은 사회 속에서 존립하기 위해 사회 또는 도서관 모체기관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도서관은 늘 사회적으로 그 유용성을 증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중세까지는 주로 권력층에 의해, 서구의 17-18세기 시민혁명 이후에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핵심인 공교육과 시민들의 사회의식 향상의 주요한 사회적 기관으로 근대적 공공도서관이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회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적 공공기관이라는 가치와 역할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정보 데이터베이스 발전으로 도서관을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도서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고, 그 위기감은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만들었다. 시스(Siess)는 2002년 워싱턴 주립도서관(Washington State Library)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없애려고 한 사건에서, 시민단체의 활동과 도서관의 강력한 마케팅으로 결국 계속 유지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사서들과 그들의 뛰어난 서비스가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

들에게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이 같은 인식의 결여로 계속 사람들의 관심 밖에 머무르다가는 결국 몰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그러한 위기감에서 시스는 더 이상 사서와 도서관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존립하지 말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sup> “사람들의 눈에 띄는 도서관과 사서”, 그것이 도서관과 사서가 인류 역사를 이어 오늘 이후에도 사회 속에서 그 존재의의를 유지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 도서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45년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관은 늘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맞닥뜨렸지만 늘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도서관을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도서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역사는 바로 지식·정보의 대중적 보급과 확산, 그리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역사다(이연옥 2002, 262). 그러나 현실은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정이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도서관이 유효한 투자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 목적에 있어 도서관측과 행정부문, 사회 일반의 인식이 같아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개인적 목적의 공부방으로 이해하고 있고, 행정가들은 도서관이 가진 사회적 가치가 아닌 단지 다른 행

1) 주디스 A. 시스(Judith A. Siess)는 『The Visible Librarian : asserting your value with marketing and advocacy』(ALA, 2003)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2005년 이우정·박수희·김태훈에 의해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한국도서관마케팅연구소 기획, 이체刊)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역자들은 이 책에 ‘도서관과 사서들을 살리는 책’이라는 부제를 달아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정기관처럼 예산과 즉각적 결과에 따라 도서관을 인식하고 그래서 도서관을 다른 행정기관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sup>2)</sup> 따라서 자료의 대출, 참고자료 이용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지 않는 도서관 이용 목적의 전도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이용목적 전도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사회적 장치로서의 자리 매김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인웅, 양재한 1997, 7).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마련과 실천노력이 필요하다(이용훈, 심효정 2002).

이 논고는 이같은 관점에서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한 독서진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도서관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를 분석하고,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는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의 경우에까지 다루기에는 그 범주가 넓고, 또한 사회적 가치를 논의하기에는 그 기본성격이 '민중의 대학'이라고 하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도서관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은 궁극적으로 도서관이 존립하는 상황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라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남태우, 김상미 2001, 178)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도서관의 목표는 개인의 향상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일원으로 되어 있는 사회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사회와 도서관의 관계, 즉 사회 질서 속에서 도서관의 위치를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 즉, 도서관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전달·제공하는 사회기반으로서 그 존재의 의의를 가진다(김미향, 이지원 2005, 238-239).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관해서 운영진은 지식의 보존, 교육 및 조사 활동의 지원, 보편적 접근의 구형, 공동체적 교류와 여가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청하고 있다(운영진, 2002, 75-78). 이용훈과 심효정은 효율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의 방안으로 도서관 권리선언 제정 및 대사회적 활동 강화, 독서실 기능 폐지, 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 강화, 도서관 장서 부문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이용훈, 심효정 2002, 159-165).

그렇다면 오늘날 도서관은 과연 어떤 지점에서 사회적 요구와 직면하고 있는가. 이러한 지점은 우리 사회가 도서관에 대해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발견함으로써 확인할 수

2) 이같은 사례의 대표적 예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민간위탁이나 명칭변경, 학교도서관에서의 전문직원(사서교사) 배치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다른 행정기관과 다른 점, 장서가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전문인력은 단순히 시설이나 장서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아니라 도서관 자원(장서나 시설 등)을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연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있다. 문제는 그러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조직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도서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2.1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요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4년 보고서에서 공공도서관을 시민이 향수하고 누릴 수 있는 시민의 자산이며,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시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신 도서와 다양한 문헌 자료들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4.31/5점 만점)하였고, “열람실과 주변 환경의 정숙유지”(4.18), “개인학습 및 열람공간 확대(3.92)”와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제공”(3.89) 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ix-x). 이같은 조사결과는 아직도 시민들은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인식과 단순히 열람실(독서실)을 이용하는 개인학습 공간이라는 인식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람실 이용 위주의 도서관 운영은 최근에는 학술연구를 지원해야 할 대학도서관에까지도 확산되고 있어 도서관 운영 방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래도 최신자료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은 도서관의 본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어 도서

관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여지를 가지게 한다.

각 지역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마산시 마을도서관만들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마을도서관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서명운동을 하였다.<sup>3)</sup> 전상인은 우리나라에 공공도서관은 500개뿐인데 노래방은 9만개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할 때라고 지적하였다.<sup>4)</sup>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도정일은 도서관에 대한 많은 담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정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서관은 단지 책 읽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양극화, 양극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정보의 양극화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책을 사서 볼 수 있죠.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책을 사려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정보의 불평등은 지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극심한 양극화의 한 단초가 된다’고 그는 말한다. 여기에 도서관의 사회안전망 역할도 덧붙였다.”<sup>5)</sup>

2003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MBC에 의해 추진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증대했다. 2005년 9월에는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경찰청이 도서관 시설 일부를 보육시설로 바꾸

3) 2006년 3월 23일 조례제정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매주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300여명 이상의 서명이 모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고 한다.

4) 중앙일보 2006년 1월 12일 [중앙시평] “공공도서관 500개, 노래방 9만개”

5) 경향신문 2006년 2월 13일 [사람속으로] 도정일 “독서날개 달아주는 일은 정년 없죠”

겠다고 하자, 도서관 이용자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도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그 결과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다른 곳에 대체시설을 찾기로 함으로써 도서관을 지켜낼 수 있었다.<sup>6)</sup> (사)어린이와 도서관은 '전국어린이도서관한마당'을 열었다.<sup>7)</sup> 행사에 영부인이 참석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을 잇달아 개관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개선 사업도 추진되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도 역삼동 분관(전 학위논문관)을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2006년 6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같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역주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서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라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도서관 정책을 수용자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8)</sup>

언론도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은 탐사보도 "도서관을 살리자"를 2006년 1월 18일 신문1면에 기사를 게재했다. 이후 20일, 23일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21일에는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25일에는 시리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 도서관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앙일보>는 2002년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 "도서관을 늘리고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sup>9)</sup> 이외에도 최근 들어 중앙언론은 물론 지방언론들도 도서관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sup>10)</sup>

6) 한국일보 2005.10.25.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찰청은 도서관 대신 다른 곳에 보육시설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대운동을 조직하고 이끌었던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로 구성된 사적어린이독서연구회 조미환 대표는 "경찰관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곳"이라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7) 2005년 7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올림픽공원에서 열렸다.

8) 작은도서관을 중시하는 정책은 기존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반성과 국민들의 요구, 즉 생활권 가까이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이 많아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제시된 정책이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서관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도서관들에 대한 현황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다소 혼란이 없지 않다. 이에 2006년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에 전담팀이 구성되면서 실태 파악이라든가 관련 예산 확보 노력 강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정책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하는 <도서관계>는 2006년에 들어 작은도서관에 관한 실무적인 글들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

9) 다섯번의 시리즈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유권자가 나신다, 2. 책 없는 공공도서관, 3. 지성의 황폐화-대학도서관, 4. 아이들이 불쌍하다, 5. 도서관정책 이렇게 바꾸자

10) 도서관 관련 언론보도를 스크랩해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계 뉴스클리핑'에 게재된 기사의 경우, 2005년 4월 1달간 무려 527건(1일 평균 약 18건), 5월은 1일부터 3일까지 33건(1일 평균 약 10건)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도한 매체는 방송, 중앙신문과 지방신문은 물론 인터넷 언론 등 다양하다.

<http://203.241.185.12/stork.html> [인용 2006.5.6.]

한편 KINDS에서 2005년 5월 8일부터 2006년 5월 8일까지 1년간 전국적으로 보도된 내용을 검색해 본 결과 '도서관'으로는 7,977건이 검색되었다. 반면 박물관은 12,363건이었으나, 미술관 5,637건, 문예회관 1,072건, 문화의 집 261건 등으로 도서관이 박물관과 함께 가장 많은 관심과 활동의 대상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권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 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통해 도서관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2005년 3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논의를 거쳐 2006년 4월 25일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sup>11)</sup>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서관법이 행정 또는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격차 해소의 의무를 도서관에 부과하거나 특수도서관에 속해 있던 도서관들과 문고, 어린이도서관(신설)을 모두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를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오랜 도서관계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등 크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4년 7월 14일 김재윤의원 등 14인이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정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도서관계 내부의 찬반 논의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sup>12)</sup>

시민사회단체도 5월 31일 지방선거에 대응

하면서 다양한 정책의제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고자 29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복지·문화·자치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어린이도서관 등 생활권역별 문화권 확대"가 그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겨레신문>은 15개 항목의 '공약 점검표'를 만들었고 그 한 항목으로 '어린이도서관을 많이 짓겠다고 약속했나요?'를 제시하고 있다.<sup>13)</sup> 지역단위로도 유사한 요구들이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문화연대가 2006년 "민선4기 서울시장 선거 문화정책공약 제안"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문화기반 조성 : 어린이도서관, 놀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적 문화기반시설 조성, 어린이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사업 확대 지원'을 요구하였다.<sup>14)</sup> 이미 서울시 시장선거에 나선 한 후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대신 어린이도서관을 500개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지역 16개 단체는 '유권자대

<http://www.kinds.or.kr> [인용 2006.5.8.]

11) 정병국의원등 21인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714, 2005.4.26.), 이미경의원 등 47인의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900, 2005.6.1.) 및 박형준의원등 27인의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548, 2005.9.1.)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2005년 9월 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그 이후 논의가 정제되어 있다가 2006년 4월 들어 논의가 급진전되어 2006년 4월 19일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경의원안이 수정 처리되고, 4월 25일 문화관광위원회 본회의에서 다시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나머지 2건의 개정법률안은 계류상태이다.

12) 제출된 법률안에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학교사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도서관계는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은 반드시 사서교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2006년 3월 30일)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아직 그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13) 한겨레신문 2006년 5월 3일

14) 문화연대, 『2006년 민선4기 서울시장 선거 문화 정책공약 제안』, 2006.5.4.

회'를 열고 10대 핵심과제를 결정했는데, 그 중에 '어린이 도서관 등 생활권 문화공간의 확보'가 포함되었다.<sup>15)</sup> 충북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5·31 지방선거 충북연대'는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10대 지역경제 정책의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및 도립 도서관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sup>16)</sup>

인터넷 시대를 맞아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에서도 독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 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네이버는 '책 읽는 당신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별도의 독서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sup>17)</sup> '책 읽는 북앤 블로그'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책과 독서, 도서관 문제에 대한 글들을 게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0분 독서운동이나 시민단체의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 제휴하여 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도서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서점과의 연계를 통해 책과 독자들을 연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형서점인 교보문고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의 한 방편으로 '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사업 실시' 및 '지역 사회 독서관련 캠페인 지원', '북스타트 운동 전개' 등 대규모 독서 캠페인을 통해 전국민이 책 읽고 학습하는 사회를 만들어감으로써 아름다운

국민,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sup>18)</sup>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책과 독서는 정보사회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관점에서 기존의 도서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대해 이용자는 물론 정부나 행정당국 등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근저에는 독서활동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깔려 있다. 근래 우리나라 도서관에 있어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의미를 낳은 '기적의 도서관'은 원래 책을 읽자는 캠페인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도정일은 "문화의 세포랄 수 있는 '책', 그리고 책들의 전당인 '도서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열악해진 인문학의 현실" 때문이었다고, 즉 도서관은 근본적으로 "문학과 인문학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발언을 할" 공간으로서의 존재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필요를 느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책과 도서관이었다고 말한다.<sup>19)</sup>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의 핵심은 이제 책을 읽는 것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산시에서 마을도서관 만들기에 나선 시민들은 마을도서관이라고 하는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하여 거기서 어린이 독서운동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운동이나 주민들의 평생학습과 관련한 각

15) 평화신문 2006년 5월 3일

16) 조선일보 2006년 5월 4일

17) <http://bookreading.naver.com> [인용 2006.5.4.]

18) KMAC, "2004년 K-BPI(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서적판매 : 교보문고"

[http://www.csnnet.co.kr/library/library\\_04a\\_cont.asp?Pk=2101&GotoPage=1](http://www.csnnet.co.kr/library/library_04a_cont.asp?Pk=2101&GotoPage=1) [인용 2006.5.5.]

19) 한겨레신문 2006년 2월 5일

중 사회교육 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한다.<sup>20)</sup> UNESCO/IFLA도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능력은 능동적인 원만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전제하고,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이같은 현대적 기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맹을 없애고 매체사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다른 기관들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궁극적으로 독서진흥 활동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Gill 2002, 35-36). 이처럼 사회가 도서관을 원하고 도서관이 하기를 원하는 활동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이 민주 시민사회의 원만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문화적 혜택을 고르게 누릴 있도록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그것은 독서진흥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지점, 즉 독서진흥 활동이 도서관이 사회적 요구와 만나는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2 도서관에서의 독서진흥 활동

도서관 부문에서도 독서진흥은 그 중요성이 더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5년 10월 개관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을 발표하면서 '범국민 독서진흥 강화'를 핵심사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05, 99-101). 같은 해 12월에는 『국

민독서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자 : 이용훈, 안찬수)를 수행하고, 12월 13일에는 '독서진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도서관의 독서진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냈다. 안양시립도서관은 2005년 사서들이 독서정보평가단을 구성하여 4월부터 도서요약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같은 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이 시의 혁신창출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sup>21)</sup> 또한 최근에는 독서진흥 차원을 넘어 독서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도서관이 독서라는 사회적 관심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sup>22)</sup> 도서관 부문의 독서진흥 활동은 한국도서관협회가 1965년 제정한 이후 꾸준히 전국 회원 도서관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주간(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과 2002년 이후 시작한 '가족독서운동 캠페인 : 책읽는 가족이 됩시다', 전국 공공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 197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독서교실, 그리고 도서관계도 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추진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와 북스타트 운동, 서산시립도서관 등이 주도하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한 책 읽기) 사업<sup>23)</sup> 등이 있다(이용훈, 안찬수 2005, 50-52).

과연 독서진흥 활동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중요한 접점이 되고 있는가? 시민들은

20) 마산시 마을도서관만들기 운동본부 김용택 공동대표가 2006년 3월 27일 KBS창원 제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보화사회에서 독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하고, 마산시에도 주민들과 밀착된 소규모 도서관으로서의 마을도서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1) 안양석수도서관, 안양평촌도서관, 안양만안도서관, 안양호계도서관이 공동으로 발행한 『독서정보자료집 : 안양시도서관/사서직 혁신과제』(2005)는 도서관의 활동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22)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독서치료 연구가 진행된 이후 지금은 많은 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활동을 도입하고 있다.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독서치료 강좌가 진행되었고, 경기도사서협회는 독서치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도 하였다.



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 책 읽기를 2003년부터 시작한 서산시립도서관은 이 운동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활발한 대화 분위기를 만들으로써 서산시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식기반 사회를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한국도서관협회, 서산시립도서관 2003, 40)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책 읽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권우는 도서관계가 식물성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한 책 읽기 사업 등 광범위한 독서운동을 통해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알리고 조직을 꾸리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동물성'의 성격을 보일 때(이권우 2004, 46-47)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도서관의 독서운동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겠냐는 것은 이미 미국사회에서 증명되었다. 시애틀에서 비롯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미국전역은 물론이거니와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운동의 주체세력이 진정성을 유지한다면, 이 운동은 확실히 책 읽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이권우 2005, 11)라는 평가를 통해 도서관이 진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한다면 도서관은 독서진흥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고, 그로인해 도서관이 이 사회에서 존립할 충분한 이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3.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 전략으로서의 독서진흥 활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진흥 활동은 도서관이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와 (재)한국출판연구소가 실시한 2004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성인들에게 독서장려 방안을 묻은 결과 가장 많은 성인들이 “도서관을 늘리고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30.6%)라고 대답하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도서관 증설과 활성화”(32.2%)를, 학교나 교사에게는 “학교도서관/학급문고의 활성화”(21.0%)를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였다(문화관광부, (재)한국출판연구소 2004). 이처럼 도서관은 독서진흥에 있어 중요한 시설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도서관이 독서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그동안의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분석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정부 및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독서진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대상이 결국 국민 다수이기 때문에 상호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조정하고 융합시켜 나갈 실질적인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가칭)독서진흥위원회<sup>24)</sup>를 구성하여 독서운동의 기획, 추진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23) 서산시립도서관이 2003년 처음 시작한 한 책 읽기는 그 후 여러 지역(순천, 부산, 원주, 서울, 익산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처음에는 도서관이 참여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도서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책 읽는 서울'의 일환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4) 현재 국회에서 독서진흥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해 논의 과정에서(가칭)독서진흥위원회의 설치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박형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안」(2006.5.8.) 제7조에서 문화관광부에 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협의를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독서 진흥 사업에 대한 정확하게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독서 진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인의 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독서 진흥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독서 진흥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이나 부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계층이나 부문에 적합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양하면서도 실효성 높은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이용훈, 안찬수 2005, 54).

이같은 시사점을 참고하여 도서관이 독서진흥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 3.1 독서진흥 활동의 기본원칙 정립과 법적 기반 조성

도서관계는 먼저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도서관은 지식정보복지 기관으로서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은 모든 국민은 독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 개인은 스스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능력과 태도 함양의 수단으로

서 독서는 고유의 권리이며,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도서관을 통해 필요한 독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서진흥 활동 과정에서는 항상 국민의 기본권(사상, 언론, 표현, 신앙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민주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 개인이 자주성을 가지고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강요나 의도적 개입은 제한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독서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사상, 의견, 관점, 판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의 자원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독서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도서관의 독서진흥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현재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적 기반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9장 '독서진흥'이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힘써야 하며,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독서진흥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공도서관은 법 제20조(업무) 4호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따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 과정에서 독서진흥은 도서관 영역을 넘어서는 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독서관련 법률에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국민독서진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와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아낼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용훈, 안찬수 2005, 85). 그러나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추진되어 온 「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 의원 등 14인, 2005.10.26.)이 2006년 4월 25일 문화관광위원회 표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sup>25)</sup> 이에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등)들이 새로운 법률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도서관들도 그동안의 경험과 향후 독서진흥 활동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독서진흥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가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향후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sup>26)</sup>

### 3.2 도서관에 적합한 독서진흥 사업 개발 추진

도서관은 스스로 도서관에 적합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sup>27)</sup> 특히

국립중앙도서관과 도서관 전문단체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독서진흥 활동의 중심이어야 하며, 다른 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에서의 효과적인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주도하기 위해 독서진흥 활동 담당부서(담당자) 설치·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sup>28)</sup> 장기적으로는 전국 공공도서관에 독서 프로그램 전담 직원 배치하여 해당지역 독서진흥 사업을 주도하면서 다른 도서관 또는 민간부문 독서진흥 활동을 지원한다. 각 지역의 자체적으로도 공공도서관은 다양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해야 한다. 독서교실 지속적 활성화 추진, 다양한 연령층 또는 주제별 독서회 특히 청소년 또는 어르신 독서회의 활성화 추진, 순회 독서지도 프로그램 또는 독서지도 버스 운영, 다양한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책 읽는 버스 운영 지원, 한 책 읽기 사업 추진, 북스타트 운동 전개 등의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들은 협력해서 독서 및 책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평지 발행을 통해 독서진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도서관 단체들은 다른 도서관들과 함께 IT 강국의 이점을 살려, 인터넷을 활용

25) 박형준의원은 5월 8일 다시 「독서문화진흥법안」을 발의했다.

26)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독서진흥 관련 법률은 청소년의 독서활동은 청소년들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적·정신적으로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의 「청소년독서진흥법안」(정성호 의원등 10인, 2005년 11월 24일, 정무위원회) 과 학생의 독서활동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무 등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주적인 독서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창조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학생독서진흥법안」(김영숙 의원등 15인, 2005년 10월 13일, 교육위원회) 이다.

27) 이하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용훈, 안찬수의 『국민독서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92-96쪽에서 제시한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28) 미국의회도서관의 '도서센터'(The Center for the Book)와 같은 독서 활동 추진 조직을 참고할 수 있다.  
http://www.loc.gov/loc/cfbook/

한 다양한 독서 및 책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도서관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 독서 정보 제공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독서TV 및 라디오 방송 운영, 도서관 또는 서평 전문 웹진 발행, 온라인 도서관지도 및 서점 지도, 북카페 지도 등 제공, 모바일을 이용해서 매주 책 한 권씩을 소개하는 '이 주일의 책 한 권'(가칭) 서비스 제공, 독서 상담 전용 전화 운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지역의 도서관들은 좋은 독서환경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하면서도 수준 높은 장서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장서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데,<sup>29)</sup>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서평지 또는 선정도서목록, 기타 전문 목록 등을 발행해서 독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을 위한 선정도서목록 발행, 상황별 독서목록 발행 정례화, 지속화, 기타 전문 분야별 목록: 독서치료 도서 목록 등을 제작·배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도서관이 주도하는 독서 캠페인과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도서관들이 협력해서 전국을 무대로 하거나 다양한 연령층 또는 지역별 독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

존의 일회적 캠페인이 아닌 독서활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획·추진해야 하며, 특히 지역단위 독서 캠페인 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주간 활동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 독서의 달 등에 집중적인 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독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제 독서에 참여하거나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적합한 홍보대사를 선정해 독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거나, 홍보용 포스터 제작과 배포,<sup>30)</sup> 각종 독서 주제 홍보 물품 제작·보급,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독서 홍보 또는 독서기증 활동 참여 유도 및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도서관의 친구들'과 같은 후원조직 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독서문화 주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선의 도서관은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의 독서진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가정에서의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가정에서의 독서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평소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소외지역 가정 등에 읽을 만한 책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책 구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책 읽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29)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구입비가 2005년 크게 줄었다. 이는 그 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던 자료구입비를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였는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료구입비 투자를 줄인 결과 2005년 말 전년 대비 약 4.6%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문화』 2006년 2월호 72쪽 참조.

30) 이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나 미국도서관협회 'READ' 포스터, 청소년 책읽기 운동에서의 인기 연예인(비, 신지) 등을 활용한 독서 포스터 등의 사례가 있다.

독서진흥 활동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한국도서관협회와 공공도서관들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가정독서운동 캠페인 : 책 읽는 가족이 됩시다'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도서관과 연계된 가정의 훌륭한 독서진흥 기지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독서진흥과 관련한 시상제도 확대와 개선 추진, 새로운 시상 부문 개발 등의 사업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사례와 같이 한국도서관협회나 도서관 전문단체를 중심으로 도서관들이 참여하여 책에 대한 시상제도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sup>31)</sup> 청소년들의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우수 청소년 독서회 발굴 시상<sup>32)</sup>과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4. 결 론

오늘날 도서관은 다른 여러 사회적인 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각 부문간 경계가 모호해 지고 때로는 서로 융합되고 있다. 사회적 자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영역도 경영기법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회 기관들은 자신들의 벽을 허물고, 폭넓

은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모든 활동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고객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는 전통적으로 변화에 민감하지 않았던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같은 오랜 도서관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도서관들은 도서관 서비스와 사서의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또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역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책과 읽는다는 것은 도서관이 그 역사 내내 지켜왔던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해진 오늘날 시민 개개인의 독서능력 향상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 활동은 다시금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독서진흥을 21세기 도서관 활동의 블루오션<sup>33)</sup>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

일본의 근대 도서관 세계를 연 와다 만키치(和田萬吉)는 1900년대 초 이미 근대 도서관

31) 미국도서관협회는 다양한 시상제도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책/미디어 부문에서도 다양한 시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http://www.ala.org/Template.cfm?Section=bookmediaawards> [인용 2006.5.4.]

32) 2005년 가을 한국도서관협회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책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우수 운영부문에 10개관, 우수 독서토론 부문에 6개 독서회를 선정 시상하였다. 2005년 10월 19일에는 '공공도서관 청소년 독서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3) 최근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문화> 5월호 기획으로 도서관의 블루오션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의견을 공모했는데, 여러 학자와 사서들이 독서치료를 블루오션 활동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처럼 독서활동은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핵심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의 정신을 ① 도서관의 도서는 이용하기 위하여 있다. ② 모든 책이 이용자와 연결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독서해야 할 자료이다. ③ 독서를 통해 모든 사람이 지식을 또한 정보를 평등하게 서로 나누어 갖는다. ④ 도서관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전달 기관이다(이치주 2005, 110)라고 말했다. 랑가나단이 도서관학 5법칙을 발표하기 십수 년 전이라고 한다. 랑가나단도 1931년 5법칙을 발표하고 도서가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이용자에게 적합한 도서를 제공할 것을, 그리고 모든 도서는 또 적합한 독자와 연결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19세기 시민혁명 이후 시민들의 독서의 장이자 독서활동의 본거지로 존립해 왔다. 랑가나단이 말한 것처럼 이같은

보편적 규칙이나 이론은 항상 개별 상황에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랑가나단 2005, 15-16)하기 때문에 오늘날 도서관들은 이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서관의 정신과 존립 원칙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독서진흥 활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책은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읽어야 하며' 누구나 원하는 책을 모두 스스로 구해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 같은 책과 정보의 공유시설이 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불평등 또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서관이 이같이 주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때 비로소 도서관은 사회의 한 기반시설로서 그 존립의미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5. 『국립중앙도서관 2010』.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국진. 2006. 『디지털 융합환경 변화와 출판산업발전방향』. 미공개 발표자료(2006.5.4.)
- 김미향, 이지원. 2005. 도서관학 이론정립의 거성 세라.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 이병목 기획·감수, 고인철 외 지음. 서울: 한울아카데미. 211-261.
- 남태우, 김상미 공편. 2001.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사상: 세라(J.H. Sera)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대한민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http://culture.na.go.kr/index.jsp>>
- 문화관광부,(재)한국출판연구소. 2004. 『2004년 국민독서실태』. 서울: 문화관광부.
- 박인웅, 양재한. 1997. 한국 공공도서관의 정보제공기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26: 479-50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시스, 주디스 A.(Siess, Judith A.). 2005.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 이우정·박수희·김태훈 옮김. 서울: 이체.
- 안양석수도서관, 안양평촌도서관, 안양만안도서관, 안양호계도서관. 2005. 『독서정보

- 자료집: 안양시도서관 / 사서직 혁신과제』. 안양: 안양석수도서관.
- 윤영민. 2002. 정보사회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남산도서관 개관 8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남산도서관, 한국비블리아학회. 2002.10.7. [서울: 남산도서관].
- 이권우. 2004.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성과와 과제.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2004.10.5. [서울: 세종문화회관].
-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용훈, 심효정. 2002.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 13(2): 155-167.
- 이용훈, 안찬수. 2005. 『국민독서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이치주. 2005. 일본 도서관 근대화의 선각자 와다 만키치.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 이병목 기획·감수, 고인철 외 지음. 서울: 한울아카데미. 77-112.
- 한국도서관협회, 서산시립도서관. 2003. 『서산 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함께 읽는다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ttp://www.ala.org>>
- Gill, Philip.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Ranganathan, S.R. 2005. 『도서관학 5법칙』. 최석두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U.S.A. Library of Congress.  
 <<http://www.loc.gov>>